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10.01~24.10.31)

### □ 방재·감재 대책 등 강화에 40억 배분 [10/1]

- 국토교통성은 「방재·감재 대책 등 강화사업 추진비」의 2024년도 제2회 배분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19건의 공공사업(하천·도로·사방·해상교통)에 대해 40억 엔의 예산 배분을 결정함
- 「방재·감재 대책 등 강화사업 추진비」는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재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실시하는 교통 인프라(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에 대해 중대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안전성 향상), 용지 확보 등 사업 실시 환경이 새롭게 정비된 사전 방재 대책 등에 연도 중에 신속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임
- 이번 예산 배분은 크게 ① 재해지역에서의 재해대책, ② 사고(선박)의 재발 방지 대책, ③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사전 방재 대책으로 구성됨. ① 재해지역에서의 재해대책은 △ 홍수·침수 대책(하천)에 6.45억 엔(5건), △ 산사태·법면붕괴대책(도로)에 2.5억 엔(4건)이 배정됨. ② 사고(선박)의 재발 방지 대책은 교통안전 대책(해상교통)에 1.64억 엔(1건)이 배정됨. ③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사전 방재 대책에는 △ 홍수·침수 대책(하천·사방)에 25.7억 엔(7건), △ 산사태·법면붕괴대책(도로)에 3.55억 엔(2건)이 배정됨

###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10/1]

- 2024년 10월 1일부로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국토교통대신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 명령을 내림
- 일본ERI주식회사(국토교통대신 지정 제5호)는 나가사키 현 내 2건의 건축물 계획 확인 심사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규정(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음)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지정확인 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하였음
- 국토교통성은 확인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 불충분 확인 심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 개선 및 심사 체제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 계획서를 2024년 10월 22일 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함. 또한 해당 계획 제출 일로부터 1년간 해당 계획 실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기관 내 설치된 감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이라 밝힘

### □ 도시 디지털 트윈 구현 모델의 정비·활용·오픈데이터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뢰를 실시 [10/4]

- 도시 디지털 트윈 실현을 목표로 국토교통성이 다양한 플레이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Project PLATEAU에서는 2020년도에 개시된 이후 그 잠재력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 개발이나 커뮤니티 육성, 기술 개발 등에 임해 왔음

-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3D 도시모델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PLATEAU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실제로 유용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장하는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2025년도에는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각각의 이니셔티브로 대처를 진행하는 「PLATEAU 에코시스템」의 본격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앞서 실시한 정보 제공 의뢰에서 전달된 다수의 아이디어를 참고로 작성한, 내년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29건의 프로젝트 모집 테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모집함
- 모집 테마의 주요 키워드는 △ 데이터 커버리지 확대, △ 활용 케이스 개발, △ 커뮤니티 형성, △ 서비스 구현, △ 지역의 디지털 케이퍼빌리티 향상, △ 오픈 이노베이션 창출, △ 생태계 구축 등이 있음

#### □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를 개최 [10/4]

-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수치정보(\*)를 비롯한 지리공간정보의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에 임하고 있음
- 2023년~2024년도에 개최한 유식자 검토회 「앞으로의 국토수치정보의 정비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의 최종 보고서에 기초하여, 국토수치정보를 보다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로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저 확대를 위한 대처로서 데이터 분석 대회를 개최함
- 국토수치정보 등의 오픈 데이터나 협찬 기업 각사로부터 제공된 부동산 관련 데이터, 분석 환경을 조합하여,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는 관민연계형 데이터 경진 대회임
- ※ 국토수치정보 : 국토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지가, 인구, 도시계획, 재해 리스크 정보, 교통인프라, 공공시설 등)를 GIS데이터로서 정비하고, 오픈데이터로서 공개한 것임

#### □ 공공공사 시공체제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10/7]

- 공공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주자에 의한 적절한 시공 체제 확보가 중요함.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공체제 적정화나 안전위생, 노동환경의 개선에 대한 배려 등이 주목받고 있어, 적절한 시공 체제 확보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시공 체제 점검 요령 등을 정하고, 각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 직원에 의해 평소부터 시공 체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국토교통성 직할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체제에 대한 전국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 기간으로서 23회 차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 BRIDGE 9월 배분 대상 시책 결정 [10/7]

- 내각부에서는 2023년부터 각 부처에서 연구 개발 성과를 사회 과제 해결 등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연구개발과 Society 5.0과 전달 프로그램(BRIDGE)」를 개시하였음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관민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영역에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대처 실시·가속에 임함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에서 9월 예산 배분 시책이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성 관계 대상 시책은 2개(예산배분액 : 1.22억 엔)가 결정되었음. 대상 시책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의 국제항공운송의 안전·보안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8200만 엔), △ 복원력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에 관한 국제표준화(4000만 엔)의 2개 과제임

□ 제7회 일본·터키 건설 산업 회의 개최 [10/8]

- 국토교통성은 2024년 10월 1일 일본과 터키 건설 관련 기업이 연계한 제3국에서 해외 인프라 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터키무역부와 공동으로 제7회 일본·터키 건설 산업 회의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함
- 일본 측에서는 국토교통성의 국토교통심의관, 해외프로젝트심의관, 대신관방심의관, 터키일본 국대사관 특명대사, (독)국제협력기구, (독)일본무역진흥기구, (주)국제협력은행, (주)일본무역보험, 일본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 등이 참가하였음
- 터키 측에서는 무역부 부장관, 터키 건설업협회 부회장, 터키수출입은행, 터키건설 기업 등이 참석하였음
- 이번 건설 산업 회의에서는 양국 대표자의 연설, 제3국 건설 분야에 대한 협력 각서(MOU) 서명, 우크라이나 부흥담당 부총리 겸 지방국토인프라발전 장관으로부터 비디오 메시지를 통한 우크라이나 복원에 관한 정보 교환,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정보 교환 및 비즈니스 매칭을 실시하였음. 회의에는 양국에서 60기관, 140명의 관계자가 참가하였음

□ 전국 2지역 거주 등 촉진 관민 제휴 플랫폼 킥오프 이벤트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10/9]

- 다양한 가치·매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만들기의 담당자가 되는 인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 전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정주민(定住人口)을 늘릴 수는 없음. 그래서 국토교통성은 도시 주민이 농촌/어촌 지역에서 동시에 생활 거점을 가지는 2지역 거주 등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시점을 가지고, 지역에 사람을 유치하고,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2개 지역 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4년 법률 제31호)의 시행에 맞추어 관민 연계를 통해 강력하게 2개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2지역 거주 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전국 2지역 거주 촉진 관민 연계 플랫폼」을 설립하고, 설립을 기념하여 2024년 10월 29일 도쿄도 카스미가세키 중앙합동청사에서 킥오프 이벤트 및 심포지엄을 개최함
- 킥오프 이벤트에서는 국토교통대신, 일반사단법인 쉐어링이코노미협회 대표이사, 나가노현 기획진흥부부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일반재단법인 국토계획협회, 국토교통성대신관방심의관, 토치기현 나스초(町)장 등이 발표를 진행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4년 8월분) [10/11]

- 2024년 8월 수주총액은 9조 3,547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7,443억 엔(전년동월대비 2.0% 증가)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6,105억 엔(전년동월대비 19.5% 증가)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7,443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7,666억 엔(전년동월대비 1.0%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9,776억 엔(전년동월대비 2.4%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5조 7,443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5,865억 엔(전년동월대비 4.3%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5,533억 엔(전년동월대비 10.4%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6,044억 엔(전년동월대비 32.3% 감소, 3개월 만에 감소)임

□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의회 분쟁처리상황(2024년 제2사분기) [10/15]**

- 건설공사 분쟁심의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따라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임. 건설업법 제25조의2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의회는 국토교통대신에게 분기별로 분쟁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성은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함
- 2024년 2사분기 분쟁처리상황은 신규신청건수가 5건(작년 동기대비 13건 감소)임. 전기부터 이월된 건수가 38건이며, 이번 기에 8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35건임
- 신규신청건수(5건)를 분쟁 관계자 별로 구분하면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분쟁이 3건이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2건임. 분쟁 내용 별로 구분하면 공사하자와 관련된 것이 2건, 공사대금 지불에 관련된 것이 2건, 기타가 1건임

□ **국토교통성 등록자격(유지관리 및 갱신 관련) 11회 차 공모 개시 [10/25]**

- 사회자본 스톡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점검 및 진단의 퀄리티가 중요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활용할 것이 요구됨
- 2014년 6월 개정된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공사에 관한 조사 및 설계 품질 확보 관점에서 자격 등의 평가 방향성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 규정되었음
-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는 자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성에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 등을 가지는 민간 자격을 「국토교통성 등록자격」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하고, 지금까지 389개의 자격을 등록하였음. 현재는 점검·진단업무에 293개 자격, 계획·조사·설계업무에 95개 자격, 종단형 업무에 1개 자격이 등록되어 있음
- 이번에 2014년~2023년까지에 이어, 11회째가 되는 국토교통성 등록 자격의 공모를 개시함과 동시에 2018년에 등록된 82개 자격에 대해 등록 갱신을 접수받음
- 신청된 민간 자격은 전문가에 의한 「기술자 자격제도 소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함
- 국토교통성 등록 자격은 점검·진단 등의 업무에서 자격보유자를 종합평가낙찰방식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자체에서 한층 더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